

이리모현초 5-4

글 모음 집



가족과 수원여행

5학년 4반 1번 강서현

“우와~예쁘다”

제일 먼저 일월수목원에 왔다. 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가장먼저 보인 것은 분수이다. 물이 쭉쭉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며 물멍을 했다.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꽃구경을 했다. 신기하고 예쁜 꽃과 선인장을 보는데 정말 즐거웠다.



“어?! 이 분은 누구시지?”

두번째로는 수원 화성박물관에 갔다. 여러 역사적 인물과 성, 칼, 또 화살 등을 봤다. 5학년이 되어 역사를 배워서 그런지 더욱 집중이 잘되었다.



“엄마아빠 이 멋진 곳은 어디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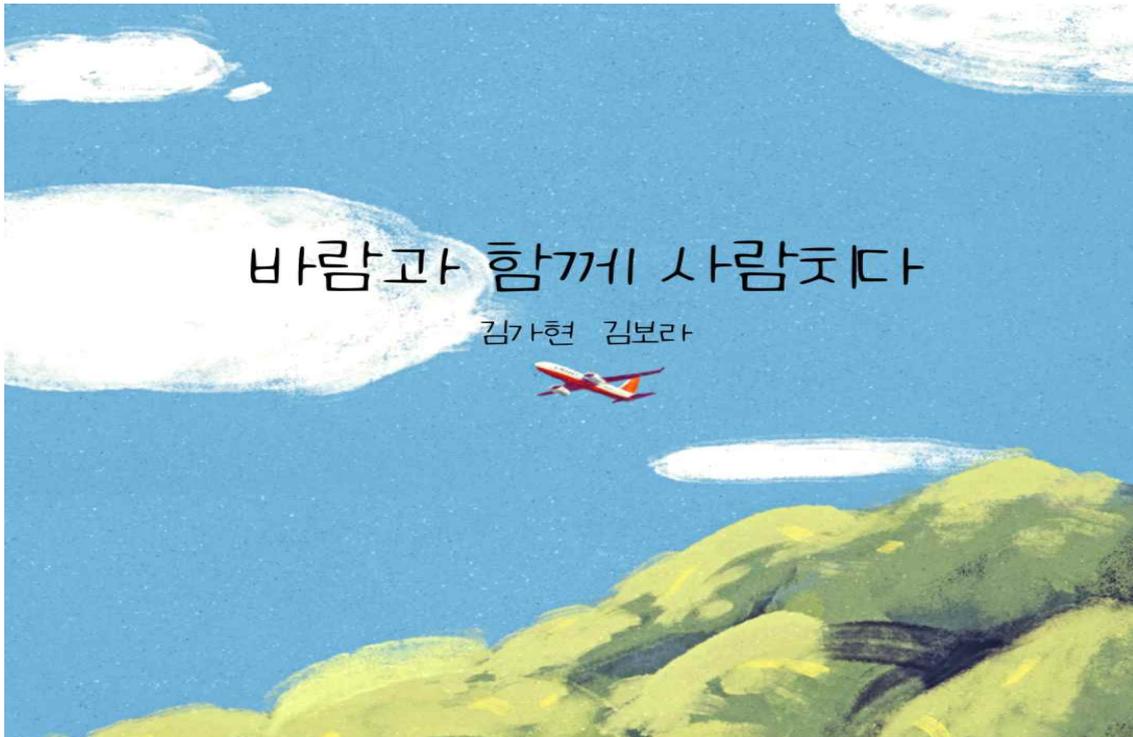
“여긴 행궁이야~”

세번째로는 행궁이라는 아주 멋진 곳에 갔다. 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 졌다.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했다.



“끼익, 익산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아빠랑 오빠는 병원에 가야해서 엄마와 기차를 타고 집어 왔다. 역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으면서 왔는데 엄마께서는 다 드시고 주무셨다. 혼자서 게임을 하는데 너무 심심했다. 하지만 혼자 열심히 견뎌내며 집에 도착했다. 가족과 함께여서 더욱 즐거웠다.^o^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가현 김보라

어느 금요일날 나는 보라와 편의점에 가려고했다.
그런데 그날은 비는 엄청 많이오고 바람도 싸게물었다.
나는 당연히 "에어~ 설마 사람이 이것도 못 지나가겠어?"
맞다. 진짜 비와 바람을 뚫지 못하고 날라다녔다.
우산은 뒤집히고 실내화 가방은 날라가고 옷은 다 젖고 5대가르마는
9대가르마로 변했다.
또 신발에 흙탕물, 모래, 자갈, 별어별게 다 들어가서
어.쩔.수.없.이. 어딘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에 발을 씻었다.
발을 씻는데도 많은 일이있었다.
우산 뒤집히고 실내화 가방 날라가고 이런거는 1번 당해보아서
관찰지만 내가 문져였다.
엄청나게 센 바람에 걸어대니는것도 힘든데 한발로 서있는 것은
어휴.. 너무 힘든거여서 그만 넘어져 버렸다!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바람이 안불어서 마음 놓고가다가
갑자기! 비가 또 와서 힘들게 편의점으로가서 시간을 보니
3분 만에 오는 거리를 30분을 넘어서 왔다!
우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걸로 한참을 웃다 각자 집,학원으로 갔다.



서현이와 다이소

5학년 4반 3번 김단아

“너 뭐살거야?”

“나? 글썄...”

우리는 다이소에 들어가서 간식들이 있는 코너에 갔다. 눈앞에 있는 맛있는 간식들을 보고 감탄했다. 너무 좋아서 말할 틈도 없이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인형들도 구경하고 문구들이 있는 코너에 갔다. 문구 코너에는 가위,풀,색종이,스티커,테이프,샤프,연필,노트 등이 있었다.

문구 코너에는 필요한게 없어서 다시 간식 코너로 갔다. 1층으로 가서 머리끈,지갑,가방,파우치 등을 구경하다가 계산을 할때 “음...”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몇가지는 빼고 조금만 샀다. 계산을 다하고 다이소에서 나와서 산 간식들을 먹으면서 서현이랑 이야기하며 쓰레기를 주고 받으면서 장난치면서 가고있는데....

“안녕~”

“응~잘가~”

우리는 학원과 방과후를 가야해서 인사하고 헤어졌다.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서현이랑 더 많이 놀고 싶다^0^~



자전거 모험

5학년 4반 4번 김도희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오랜만에 좋았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운동 좀 하고 와~”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점심밥을 먹으려고 할머니댁으로 가야 해서 오빠와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댁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배산에 들렀다. 오빠를 따라 축구골대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만 축구골대에 부딪혀 버렸다. 분수대에 앉아서 무릎을 보는데 멍이 들어있었다. 무릎에 멍을 보니 더 아픈것 같았다.

“오빠 나 여기서 쉬게.” 난 분수대에서 쉬고 오빠만 배산을 돌고 왔다. 무릎이 괜찮아 져서 다시 할머니댁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오르막길이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페달을 열심히 굴려 할머니댁에 도착했다. “어~ 왔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전거타고 왔어요.” 할머니와 자전거로 할머니댁에 온 과정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난 후 자전거를 타고 다시 오빠와 우리집으로 출발했다. 거의 집을 도착했을 즈음에 아빠께서 주신 3000으로 오빠와 어묵꼬치를 사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다시 출발하기 전에 어묵굴물을 종이컵에 가득 담아서 가니 정말 좋았다.

거의 집을 다 오면 엄청 긴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길 승~ 내려가니 시원하고 재밌었다. 집에 오니 엄마께서 “오 빨리왔네, 수고했어” 라고 말하시니 정말 뿌듯했다.

나중에 오빠와 또 자전거를 타고 모험을 하고 싶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오는 날 김기현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바람도 불어 우산이 뒤집히면서 날아다녔다.
그래서 우산을 띄어보려고 손을 댔더니 우산이 진짜 날아갈뻔했다.
근데 갑자기 김기현이 물웅덩이에서 놀다가 발에 흙 들어갔다고
이상물체에다가 발을 씻었다.
'안더러워?' '더러움' '근데 뭐함..'
발을 다 씻고 한 절반쯤 갔을때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우산이 날아
다녀 다시 줍고 김기현을 봤더니 옆어져있었다.
'ㅇ야 살려줘' '아니 뭐하는데ㅋㅋ'
그러고 또 절반쯤 갔을때 금방 갈 거리를 30분 걸려 왔었다.
도착해 서로 흠뻑 젖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재밌어보여
바람이 많이 불때 또 놀고싶다.



수영장

5학년 4반 6번 노현서

6월때 나는 친구들과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에 도착하고 각자 번호표를 뽑았다
그리고 수영복으로 갈아 입고 수영장에 들어왔다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수영도 했다
근데 친구가 수영 대결을 하자고 했다
"시작!"
나는 친구보다 빠르게 갔다
내가 이길려고 할때 친구가 옷을 잡아 당겼다
"야!반칙! 이건 아니지!"
"너도 나 잡았잖아!"
친구랑 나랑 싸울때 다른 친구가 와서 말렸다
그리고 수영 대결을 다시 했는데 내가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아니야! 이건 무효야!!"
수영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갔다 정말 재미있었다



육상대회 풋살대회

5학년 4반 7번 문지윤

해가 찡찡한 어느날 육상대회를 나갔다.
나는 너무긴장이돼서 가슴니 콩닥콩닥 거렸다.
육상대회장에 도착 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왔다.
나는 3반소현이한테 "너무 긴장돼지않아?"
라고 물어보았더니 "너무긴장돼"라고 말했다.
11시30분에 나의 대회가 시작됐다.
너무긴장이되 손을 "딱" 주었다.
나의 첫 800미터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뛰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나왔다.
그때 좀 그랬다. 육상대회가 끝나고 풋살대회를나갔다.
풋살 상대가 이서초이다. 이서초랑 경기를 시작하였다.
결국 3대0으로 우리가 졌다.
좀 짜증이났다. 특히 4번 선수가 3학년 같았다.
개인기 빨인줄알았다. 하지만 3등을했다.
왜냐 부전승이 었기 때문이다.
4번선수가 누구인지물어보기위해 윤지유한테 물어보았다.
윤지유는 물론다고했다.
그래서 최건한테 물어보았더니 안다고 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안알려 주었다.
그래서 육상 꼴등 풋살 3등해서 풋살 트로피를 받고 나왔다
다음에도 기회가있으면 꼭! 다시나가서 1등할것이다.



수영장

5학년 4반 8번 박준성

해가 찡찡한 여름 일요일이었다

“야 우리 수영장 갈래?” 내가 말하고 친구들이 찬성했다

그렇게 친구들은 각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집에서 수영복을

가지고 다 같이 모였다 수영장까지 갈때 더워서 죽는줄 알았는데

청소시간이여서 두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정자쪽에서

2정자 매미,매실 던지기놀이를 하며 놀았다

“야 이제 들어가자” 친구가 말하고 갔다 “내가 나중에 갓을 테니

까 좀 빌려줘” 친구가 수영장비를 내달라했다

“진짜 꼭 갓아라” 그렇게 내가 친구의 수영장비까지 내줬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 친구가 의견을 냈다

“물귀신 놀이하자” 룰을 몰랐던 나는 룰을 물어봤다

“룰이 뭔데” 친구가 설명을 해주고 놀이가 시작됐다

처음에 친구가 술래를했다 “야! 왜 안봐주냐고” 친구가

소리질렀다 그렇게 싸움이 나서 말리고 재밌게 놀고 나와

헤어졌다.



태국여행

5학년 4반 9번 방지환

10월 16일,드디어 태국을 가는 날이었다.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았다.해외여행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차를 타고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갔다.체크인을 하고호텔에 짐을 놓은 뒤 터미널21로 가서 맛있는 푸팟퐁 커리를 먹었다.

“우와 이게 푸팟퐁 커리야?! 엄청 맛있다.”

푸팟퐁 커리는 정말 맛있었다.

다음날,투어를 갔다. 투어 코스는 수상시장,(수상시장은 해산물과 생선을 파는 수산시장이 아닌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장이다.)기차길 시장,에메랄드 사원,새벽 사원이 인상 깊었다.크고 작은 탑들이 하나하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작은 조각들로 큰 탑을 만든 것이었다.

셋째날,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했다 호텔 방에는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침대에 HAPPY BIRTHDAY라고 쓰여져 있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조금 쉬었다가 진리의 성전을 갔는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진리의 성전은 지금도 공사 짓고 있어.”

“그래요?!”

할머니 말씀대로 지금도 공사 중이었다.진리의 성전은 삶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곳이었다.정말 웅장하고 멋있었다.

10월 19일 내 생일,호텔에서 나와 코끼리 샌츄어리를 갔다.코끼리를 울타리 없이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바나나도 주고 가까이 가서 사진도 찍었다.그리고 호텔에 돌아온 뒤 저녁에 파타야 터미널21 도쿄 층에서 스테이크도 먹었다.

10월 20일 파타야에서 다시 방콕으로 갔다.호텔에서 가까운 레스토랑을 가서 푸팟퐁 커리와 농어 튀김,팟타이를 먹었는데 팟타이가 엄청 맛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빨리 일어나서 조식을 먹은 뒤 아이콘 시암에 가서 쇼핑을 했다.태국의 꿀이 맛있다고 해서 꿀,하이진이라는 방향제가 냄새가 좋다고 해서 방향제,망고 젤리 등을 샀다.벌써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다.아쉬운 마음으로 아유타야를 갔다.아유타야는 사원보다는 오래된 유적지 같은 느낌이었다.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노을도 보고 밥도 먹고 가이드 삼촌께서 수완나폼 공항에 데려다 주셨다.그렇게 귀국을 했다.

너무 행복했다.



화재 대피 훈련

5학년 4반 10번 백에서

“6교시는 화재 대피 훈련으로 밖에 나갔다 돌아올게요 “
점심먹고 6교시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종이 치고 다른 반이 나가면서 시끄러웠을 때 우리반도 선생님을 따라 나가서 운동장으로 향했다. 한번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면서 계단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신없이 1층까지 내려왔을 땐 사람이 더 많아서 우리반 줄을 놓치고 헤맸다. 운동장엔 1~2학년이 이미 줄을 서 있었고 우리 뒤로 6학년과 다른 학년이 나오고 있었다. 줄을 서서 교장선생님을 기다릴 때 6학년도 점점 줄을 서는게 보였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화재 대피는 장난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

“따라하세요”

“누가 장난쳐! “

말리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럼에도 장난치는 학생은 있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반으로 가 6교시를 시작했다.



(대전 오월드에 간일)

5학년 4반 11번 서지형

현장체험 학습으로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갔다 도착한후
친구들과 뭐할지를 생각했다 첫번째로 자이언트드롭을 탔다
(생김새타고 났더니 달의중력 같이 잘뛰고 점프도 높아진 것같다
다음에는 도시락을 먹었다 참맛있었다 후식으로
뽕다를 먹었다 제일 늦게먹은 사람을 정했는데 내가 가장 느리게
먹었다 그다음에는 후름라이드를 탔다
(생김새)

하마터면 시간을 못지킬

번했다 그다음에는 이제 기념사진 찍고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는중에 피파를 했는데 내가 친구에게
"야1판뜨실?" "오키" 1판을 했는데 내가 처참하게
발려있었다... 그래서 나는 캐릭터를 더 키우기위해
진화를 했는데 성공해버렸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나는
즐겁게 학원을 빠지고 집으로 바로 달려가서 행복하게
개임을 했다! 끝!



축구를 한 날

5학년 4반 12번 송우주

나는 학원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으로 축구를 하러 갔다. 학교 운동장에는 친구들이 있었다 축구를 시작했다 우리는 팀을 정했다

나는 골키퍼 였다

민수는 수비를 한다고 했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근데 민수는 공격을 갔다 그러다가 공격권이 빼졌다 상대팀 공격수는 달리기가 빨라서 골대까지 금방 왔다

민수는 공격을 가서 수비가 없었다

결국 수비가 없어서 나는 골을 먹혔다

민수는 나에게 화를 냈다

“야 너 그걸 왜 못 막아!!”

“야 넌 수비 한다면서 공격가서 먹혔잖아!”

“아니 내가 안가면 공격이 안되잖아!”

난 그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나는 너무 짜증나서 공격이나 가라고 했다

기분이 정말 안좋았다



용산구청장기 야구대회

5학년 4반 13번 안종진

10월에 어느날 우리 야구단은 용산구청장기야구대회를 갔다.

용산은 야구장이 없어서 화성으로 갔는데 첫 경기를 이겨서 평택에서 하루밤 자고 둘째경기가 오후7시 경기여서 5시에 먼저 와서 야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군포가 왔다.

앞 경기가 먼저 끝나서 6시 30분 쯤 시작을 했다.

그날 감독님이 우리 경기를 보고 감동 받으셨다고 했다.

그날 10대1인가로 이겨서 그러신거 같다.

나중에 준우승을 해서 익산가서 한우를 먹었다.



엄마의 한숨

5학년 4반 15번 오서환

바람이 부르듯이 엄마의 한숨이 나왔다.

“엄마 왜 한숨셔?” 내가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에이~ 진짜 말해줘~” 내가 말했다.

그순간 엄마가 말했다. “니가 시험을 14점 맞았잖아! 그리고 동생 이랑 왜 싸워!”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커다란 필통(동생의 발) 이나를 때렸잖아! 그래서 나도 똑 같이 때렸지...” 내가 작게 말했다. “흐흠... 야 000일로와!” “넌 또 오빠를 왜 때려!” “오빠한테 사과해!” “오빠 미안.” 동생이 씨익 웃으며 말했다. “다음부턴 그러지마!” 순간 웃음이 터졌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다!



따끈따끈한 국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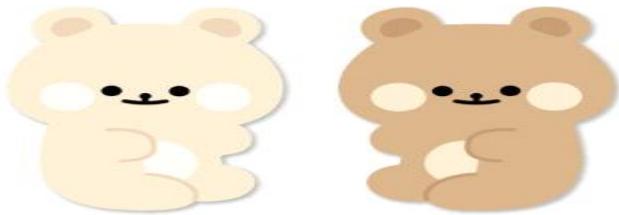
5학년 4반 16번 육태경

단풍구경 가기전 아침밥을 안먹어 따끈따끈한 국밥을 먹고
출발했다 배터지겠다

넘 맛있었다 다먹고 2간을 걸쳐 단풍구경을 했다 너무 이뻐
다 사람도 많았다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갔다 (집도착)역시 집이장이다 굴까지
넘 맛있당 아 맞다 누나는 할머니집을 가서 없었다 엄마,아
빠,나랑만 간거다 싶고 친구가 아닌 누나랑 겜을 했다 "누나
가 너무~!못한다" 내가 잘해서 내가 케리해줬다(배그)그레도
재밋다 저녁11시까지 게임하고 누나가 즐리다고 그만했다 난
심심 한데..힝

11시20분에 즐려서 나도 드끈뜨끈한한 방에서 잤다 알찬 하
루였다.11시20분에 즐려서 나도 드끈뜨끈한한 방에서 잤다
알찬 하루였다. 국밥 한그릇 어때?



OO언니와 강원도 간일!!

11월 어느날, 언니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갔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5시간이 걸린다고 해 깜짝놀랐다.
하지만 그냥 나는 차에 타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멀미도 나 휴게소를 들렀다.
차에서 내리는데 살것만 같았고 맛있는 냄새도 나서 배고팠다.
치킨도 먹고 어묵탕도 먹었다.
휴게소가 조금 추웠는데 어묵탕 국물을 먹어서 몸이 따뜻했다.
휴게소 안에 있는 편의점을 들렀는데 이모가 "음료수 1개씩 골라" 라고 하셔서
우리 둘은 밀키스를 샀다.
근데 언니가 밀키스를 바닥에 떨어트려서 밀키스가 "펑" 터져버렸다.
우린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이모는 화를 꼭 참고 "화장실 가서 머리카락도 닦고
손도 닦고 와" 라고 하셔서 우리도 "네....." 라고 하고 한 뒤 화장실을 가서
머리카락과 손을 씻고 왔다. 화장실을 갔다 와 차에 타서 내 밀키스를 같이 나눠먹는데
밀키스가 너무 맛있었다.
그걸 먹으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았다.
그거 말고도 영화를 몇편보니 도착했다.
창문을 바라보는데 리조트도 너무 예뻐지만 비가 많이 와 이때는 숙소에서만 놀아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다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싶다!!



JEJU

안녕허우꼬?

제주도에서 제주 동문시장에 가셨습니다!

동문시장에 가서 전복 김밥을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새우, 파, 고기 등등이 들어간
먹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맛은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저을 사고
단고지를 사서 먹었습니다!



4살 아가하고 탕후로도 먹기 시장에서 유명
한 뽕튀기? 집도 가고 사용한 돈을 계산해
보았더니..... 돈을 16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ㅋㅋㅋㅋ서요응

쟤든 처나버터 16만원도 사고 너무
재미어던 처쟤날 입니다!

I ♥ JEJU

로봇랜드

5학년 4반 19번 임승원

화창한 날, 주말에 가족이랑 로봇랜드에 갔다. 로봇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샀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거대한 로봇이 웅장하게 로봇이 서있었다. 그 로봇에서 형이랑 사진을 찍고 주위를 봤는데 하늘에 쾌속 열차 레일이 있었다.

“우와!” 그 옆에 비슷한 높이의 스카이다워가 있었다.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함성과 함께 물소리가 들렸다. 그건 바로 새로운 향해였다.

일단 쾌속열차를 타러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서 기분이 좋았다. 엄마는 무서운 걸 싫어해서 아빠, 형, 나 셋이서 탔다. 처음에 엄청 올라갔다가 한방에 떨어져서 5바퀴 정도 돌고 꾸불꾸불 길을 지나고 끝났다. 그다음에 스카이다워를 타러 갔다. 타가지고 끝까지 올라갔다.

“와아아아”. 엄청 재밌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향해를 탔다. 엄마가 옷 젖는다고 우비를 입고 천천히 올라와서 정상까지 왔다. 내려갈 때 물이 퍼지는게 장관이었다. 너무 재밌어서 우비 벗고 1번 더 탔다. 로봇랜드는 엄청 재밌어서 또 와보고 싶다.

화이트 Z와 함께하는 에버랜드

5학년 4반 20번 정채원

유난히 춥던 11월 10일 금요일, 나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로 떠났다.
하지만 에버랜드 앱 리뉴얼로 인해서 스마트 줄서기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줄을 서야만 탈 수 있다고 한다.

첫번째론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탔고, 피터팬을 타러가서 2번이나 타고 왔다.
그 다음은 콜롬버스 대탐험 (바이킹)이었는데 또 2번 타고 왔다
슬슬 배가 고파져서 근처 식당에 가서 분식 세트를 시켜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배를 채우고 판다월드에서 판다 가족들을 보고 왔다.
그런데 다들 자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속상했다.

판다 가족들이랑 인사를 하고 다음으로 탄 어트랙션은 슈팅고스트이다.
슈팅고스트는 총을 쏘서 귀신들을 물리치는 게임에 가까운 어트랙션으로,
귀여운 귀신과 쉬운 조작법에 너무 이지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총이 엄청 무겁다. 그걸 계속 들고 쏘야한다.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 광장을 블러드 시티라는 테마로 꾸며놔서
구경을 하러 갔는데, 좀비들도 돌아다니고 네온사인과 같은 여러
화려한 장식품으로 꾸며놔서 굉장히 신기했다.

화이트 Z는 에버랜드를 다크 X로부터 지키는 영웅 단체인데,
화이트 Z의 요원이 되어달라고 막 홍보하길래 전화하라는 곳으로
전화를 해서 입단테스트를 치렀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조금 귀찮았다.

입단테스트를 통과해서 요원들 포토카드(?)를 받고 레벨업테스트도 해보았다.
나는 키링을, 아빠는 스티커를 받았다.

미션도 하니 출출해져서 쉐리츠랑 핫콘을 먹었다
핫콘은 옥수수 알맹이가 너무 작아서 먹기 불편했고, 쉐리츠는 진짜 ㄹㅇ 맛있었다.

그리고 다시 광장 쪽으로 왔는데 요원분들 포토타임이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시던 좀비분들이랑도 사진을 찍었다
예약했던 나이트 사파리를 기다리며 기념품도 구경하고, 젤리도 사먹었다.
그러다가 7시가 되어서 나이트 사파리를 보러 갔는데
아무래도 저녁이라서 그런가 동물들이 활발히 돌아다녀서 색다른 경험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퍼레이드는 보지 않고 스카이워크를 타고 올라가려는데
스카이워크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퍼레이드를 봤다.

날씨가 추워서 이제 1시간 일찍 한다고 한다. 진짜 오히려 좋아...

거창하게 뭘한 건 아니지만 평소에 못하던 어트랙션도 타고,
여러가지를 봐서 좋았다.

밤의 에버랜드와 사진을 찍고 에버랜드를 나왔다.

정말 재미있었다.



현장체험학습

5학년 4반 21번 조하영

5월의 어느날,우리는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애들아,이제 버스 타러 가자”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 장소인 오월드에 도착했다.

“와,사람들이 너무 많아”내가 말했다.

알고보니 다른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온것였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일정인 사파리를 가지 못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다.

참,나는 나중에 친구와 사파리를 갔다. 호랑이,사자,곰,기린 등에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신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념품 가게 도가보았다. 그 다음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학교 도착 후 집으로 갔다. 체험학습은 참 재미있는거 같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다.

있잖아, 나는



5학년 4반 22번 진소정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날은 마냥 기분이 좋았다.
그 일이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겠지.
나에겐 여러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친한 첫번째 친구와의 이야기다.
그 친구와 나는 엄청 잘 맞다고 생각했다. 취미, 취향 등등이 달라도 달라서 그런가
더 잘 맞고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친구도 그랬겠지? 하지만 요즘은 관계가 좀
서먹해진 것 같다. 사소한 일로 서로 예민하게 짜증내서 그런지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많이 싸운다. 하지만 다시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아무도 모르게 다시 친해져있곤 했다.
그런데 어느날 서로 의견충돌이 커서 크게 한번 싸웠다,
“나 이것만 하면 안돼?” 친구가 말했다.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것만 하면 안돼지” 나는 친구의 말에 내 의견을 덧붙여 말했다. “알겠어 그럼 그냥 안 할게” 친구는 차가운 적막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도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몰아붙인거 같아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한동안 싸우고 나서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약 일주일 정도 쓰음
지난 시점 친구에게 화해의 선톡이 왔다. 나는 그 친구가 먼저 용기내준 것에 고마워 친구와 사소한 일로 싸운것 부터 차근차근 해결했다. 그렇게 한동안 문자로 이야기 하다보니~ 내가 미처 몰랐던 상황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끝내 화해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진 못한거같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나는 내심 그 친구에게 서운했다. 그 친구는 나랑 노는 거 좋아한다. 근데 요즘은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와만 논다. 그럴 수 있다 그 친구는 나의 소유
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유라도 묻고 싶었다. 서운해서 속상해서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그 친구는 몰라도 속으론 싸운것 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그 친구와 화해하고 싶다. 만약 그 친구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

난 그 친구와 서먹한 관계는 아닌거 같다.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대전오월드

5학년 4반 23번 최건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대전오월드를 갔다
가서 사파리를 1번 탔다
그리고 어린이 동물원을 봤다
그리고 열기구를 탔다
친구들은 가고 나는 엄마가 와서 좀 더 놀았다
그리고 대전오월드에서 간식을 먹었다
바이킹도 타고 꼬마비행기도 타고
유령의 집도 가고
그리고 나는 사파리 어린이 동물원에 또갔다
그리고 늑대마을도 가서 늑대를 봤다
그리고 곰이랑 새도 봤다
8시 쯤 출발해서 9시에 도착했다
정말 재밌었다





이리모현초 5-4

글모 음집

미린출판사

